

# 모자보호시설 입소모자가정의 가족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모자보호시설 종사자와 입소 어머니의 요구도 조사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Family Life Issues of Institutionalized Single-Mother Families in Seoul

- Focused on the Needs Assessments of Social Workers and Mothers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양호 · 박정희 · 유계숙 · 전춘애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 Kim, Yangho · Park, Junghee · Yoo, Gyesook · Jun, Chunae

### ● 목 차 ●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연구결과   |
| II. 모자가정 관련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mily life issues of institutionalized single-mother families in Seoul.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needs assessments of social workers and institutionalized single-mothers. Subjects were 4 social workers and 31 institutionalized single-mothers. The results of study showed that institutionalized single-mother families experienced economic, child rearing, emotional problems, negative stigma and the loss of social networks. Future researc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dded.

**주제어(Key Words):** 모자보호시설가정(institutionalized single-mother families), 가족복지(family welfare), 저소득모자가정(low income single-mother families)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편부모가정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990년 8십8만8천823세대에서 1995년 9십5만9

천972세대로 전체 가구수 1천만2백9십5만8천181 세대 중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부자가정이 18%, 모자가정이 82%를 차지하고 있어 모자가정이 부자가정 보다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

청, 1996). 모자가정은 사별·유기·별거·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편모가 된 여성이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시에는 20세미만)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과거에는 전쟁 미망인이나 사별로 인한 모자가정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이혼, 미혼모의 증가 등으로 인한 모자가정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러 연구들(김영희, 1996; 김오남, 1998; 박영란, 1998; 보건복지부, 1997; 신화용·조병은, 1996; 유경아, 1998; 최해경, 1997; 한국여성개발원, 1988)에 의하면 모자가정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 자녀문제 및 심리·정서적인 어려움 등을 경험한다고 한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건강가족적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자가정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에는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sup>1)</sup>, 모자일시보호시설<sup>2)</sup>, 미혼모시설<sup>3)</sup> 등이 있으며, 모두 저소득 모자가정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모자보호시설은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운영목적을 두고 있다. 모자가정의 자립이란 모자보호시설 종사자들에 의하면 생활·소득의 안정(49.8%), 성공적인 자녀교육(23.6%), 정신적 자립(4.4%), 가족해체문제 극복 및 가족유대 강화(1.7%) 등을 의미한다(박영란, 1998). 편모가 생계부양자 역할을 맡고 있는 대부분의 모자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또한 주 부양자인 편모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하기 때문에 자녀를 돌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친척이나 친구와의 왕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미숙·박민정·이상헌·홍석표·조병은·원영희, 2000). 즉 건강한 모자가정을 형성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정책 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강화 및 자녀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충분히 지원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자가정의 가족생활이나 자녀의 생활 적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 모자가정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대다수 연구들(김영희, 1996; 김오남, 1998; 신화용·조병은, 1996; 최해경, 1997)의 대상이 재가모자가정 이었으며, 시설보호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란, 1998; 유경아, 1998)는 극히 드물다. 이들 연구들 또한 대부분 모자보호시설 전반 및 운영실태에 초점을 두었으며, 입소 모자가정의 생활이나 자녀의 시설과 학교 적응 및 교우관계에 대한 측면은 간과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자가정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모자가정의 가족생활 적응문제와 자녀양육, 모-자녀 상호작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과 입소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질문지와 면접을 통하여 자녀양육 및 가족생활에 관련된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모자보호시설 가정에 대한 가족생활교육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모자보호시설 모-자녀 관계 및 아동의 건강한 인성 발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모자가정 관련 선행연구 고찰

### 1. 모자가정의 어려움과 적응

편모가족은 아버지의 부재로 가족생활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수반되어진다. 우선 아버지의 상실로 인해 주 수입원인 소득이 반 혹은 3분의 1이나 감소되거나 상실된다. 따라서 편모는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다.

- 1) 모자자립시설은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의 자립을 돕는 사업.
- 2) 모자일시보호시설은 배우자의 학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60일) 보호해 주는 사업.
- 3) 미혼모시설은 미혼모의 분만을 돕고 숙식 등을 일정기간(6개월)동안 제공해 주는 사업.

그러나 여성의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자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편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상당수가 자녀의 교육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김영희, 1996). 즉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양육의 문제가 편모가족의 어려움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수자(1995)와 Conger, Conger, Elder, Lorenz, Simons, Whitbeck(1992)은 가족 내의 경제적인 자원 부족, 시간의 제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녀를 충분히 돌봐주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녀양육에 있어서 더 엄격하거나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고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는 정서가 불안정하고 애정이 결핍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학교성적 불량, 이탈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편모가족의 상황이 자녀에게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김미숙 외, 2000). 이에 대해 신화용과 조병은(1996)은 편모가 삶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가족의 구조적 결손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지위와 가족관계, 의지 등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편모들은 배우자 부재로 인한 고독감, 역할 수행상의 혼란, 애정결핍, 사회적 위축감, 감정표현 수용의 좌절 등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편모들은 친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역사회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하려 하지만 주위사람들로부터 현금이나 물건 같은 도구적 지원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1996). 특히 편모가족은 시댁식구로부터의 지원을 가장 적게 받아(박영란, 1998) 단순히 배우자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망도 상실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미숙 외, 2000). 이는 친정식구, 시댁식구, 이웃, 친구, 친척들을 포함한 비공식적 사회적 지원망으로부터의 지원이 저조하여 시설모자가정이 비공식적 지원망으로부터 소외된 집단임을 알 수 있다(박영란, 1998). 반면 Donati(1995)는 편모가 정서적 및 사회적으로 부모나 친척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회적 관계망인 포괄적인 가족(wider family)을 형성하며, 이러한 관계망을 통해서 편모들은 신뢰, 애정, 친밀감을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 및 돈 빌리기, 자녀돌보기 등의 도구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김미숙 외, 2000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편모가족은 경제적인 문제, 자녀양육문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모가족에 대한 부모, 친척, 친구와 같은 사회적 지지망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지만 자신들의 처지와 비슷한 자조집단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2. 모자보호시설 입소 모자가정의 어려움과 적응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모자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이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를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정 혹은 미혼여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보호기준에 해당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이다. 미혼모의 경우에는 미혼모 시설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가 해당되며, 이들에게 일정 기간동안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저소득 모자세대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시설이다.

이들 입소 대상 가정의 선정 기준은 모자가정 생활등급표(4인가족 기준) 상 자산이 4,500만원 이하이며, 월소득이 1백만원 이하이다. 이들의 모자원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2001년 4월 현재 전국에 39개소에 1041세대가 수용되어 있다. 입소절차는 시, 도, 시·군·구의 여성복지계장이나 과장 또는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을 거치게 되는데 직접 찾아가거나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 의해 의뢰되기도 한다. 상담 후에는 모자복지위원회의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야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입소한 저소득 모자가정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시설보호대상자로 분류되어,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생

계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비 지원, 방과 후 아동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복지자금 용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2년 이상 기거 후 시설 퇴소시 자립정착금(세대당 200만원) 지원,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비용 지원, 그리고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생계비의 지원이 자녀학비 및 양육비의 지원, 상담 지원 등을 위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생계지원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아동양육지원 및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도 액수가 낮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술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훈련기간동안 생계비 급여가 충분치 않아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도 생계가 유지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박영란, 1998).

모자보호시설 입소 모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박영란, 1998)에 의하면 시설 모자가정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으며, 이밖에도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어머니의 건강문제, 구직문제나 가족원의 건강문제를 호소하였다. 특히 입소 모자가정 어머니들은 자녀의 교육비로 상당한 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편모가족의 어려움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 모자가정은 3년 동안 주거공간이 확보되어 입소 기간동안 주거의 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모자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일을 해도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저축을 해도 퇴소 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 모자가정은 아버지가 없다는 결손가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시설 입소로 인한 사회의 낙인으로 힘들어하였다.

또한 모자보호시설 중·고등학생 자녀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유경아, 1998)에 의하면 모자가정 자녀들은 애착관계에서는 정서적으로 친밀하나 자율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며, 어머니에게 갈등이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자가정 자녀들은 사회단체, 외가, 친구들에게 경제적 도움, 정서적 도움, 오락적 도움을 받았으며, 문제해결방법에 있어서도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지원이 없다고 응답하여 시설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자가정 자녀의 적응에 있어 본인의 적극적인 문제해결방식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요구하는 복지서비스로는 학비 지원과 어머니의 취업 알선 등 경제적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설 모자가정은 입소 3년 동안은 주거의 안정을 꾀할 수 있으나 퇴소 후 다시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결손가족과 시설 입소라는 사회의 편견이 작용하여 자녀에게 차별이 일어나는 현실과 어머니의 시간 부족으로 인해 자녀와 양질의 상호작용을 할 수 없어 편모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우리나라의 모자보호시설은 전국에 3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지역에는 7개의 모자보호시설이 있다(보건복지부, 2001).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7개 모자보호시설(표 1 참조) 중 4개 시설 종사자들과 7개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이었던 4개 모자보호시설 종사자들은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총무이며, 이들의 연령분포는 27-30세이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4) 서울시 소재의 7개 모자보호시설 중 수용인원과 시설규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4개 모자원의 시설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와 면접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B 모자원은 면접을, C 모자원은 설문조사에 응해주지 않아 설문조사는 4개 모자원 중 A, B, D 3곳의 모자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심층면접은 A, C, D 모자원에서 실시되었다.

〈표 1〉 서울시 모자보호시설의 현황

시설명	신고년도	수용정원 (세대)	수용현원 (명)			건축규모 (m <sup>2</sup> )
			계	아동*		
				남	여	
A 모자원	1953년	19	49	12	18	1,468
B 모자원	1954년	22	47	12	15	1,170
C 모자원	1954년	14	35	9	12	796
D 모자원	1951년	32	86	28	25	2,104
E 모자원	1954년	20	48	12	15	898
F 모자원	1954년	24	55	16	15	1,424
G 모자원	1953년	24	63	19	20	1,479

\* 아동은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어머니의 자녀로서,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한다(2001년 4월 30일 기준).

〈표 2〉 연구대상 시설종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

시설명	직위	연령(세)	성별	학력	자격증	시설종사자수
A 모자원	총무	30	여	대졸	사회복지사 1급	4
B 모자원	총무	27	여	대졸	사회복지사 1급	4
C 모자원	총무	28	여	대졸	사회복지사 1급	4
D 모자원	총무	28	여	대졸	사회복지사 1급	6

〈표 3〉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1)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어머니의 연령	20대	1	3.4	모자가정이 된 경로	이혼	16	57.1
	30대	12	41.3		사별	7	25.0
	40대	15	51.6		별거	3	10.7
	50대	1	3.4		미혼모	2	7.1
어머니의 학력	중졸이하	8	27.5	모자원 입소 전 거처	전셋집	5	16.1
	고졸	17	58.6		월셋집	16	51.6
	전문대졸 이상	4	13.7		기타	10	32.3
어머니의 직업	사무직	2	9.5	모자가정 지속기간	1-5년	20	76.9
	판매 및 서비스직	3	14.3		6-10년	6	22.9
	생산직	3	14.3				
	단순노무직	13	61.9				

한편 본 연구대상인 어머니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어머니들의 연령분포는 28-50세까지이며, 이 중 30대가 41.3%, 40대가 51.6%로 30대와 40대가 전체의 93%를 차지

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의 90% 이상이 30, 40대로 우리나라 모자가정은 대체로 중년기 이전에 형성된다는 보건복지부(1997)의 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들의 학력은 고졸 이상이

전체의 72.3%를 차지하였으며, 직업분포는 전체의 61.9%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의 한 달 수입은 16-100만원의 분포를 이루었으며 평균 수입은 58.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은 노동부(1997)에서 보고한 단순노무직 평균 임금인 64.4만원보다도 낮아 시설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저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1일 노동시간 분포는 5-13시간이었으며 평균 노동시간은 8.04시간으로 나타났다.

모자가정이 된 경로를 살펴보면 이혼이 57.1%, 사별이 25%, 별거가 10.7%, 미혼모가 7.1%로 나타남으로써 이혼으로 인한 모자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박영란(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들의 모자가정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전체의 76.9%가 1-5년으로 나타났다. 시설 모자가정의 자녀 수는 1-3명으로 평균 1.48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이들의 연령분포는 2-20세까지로 평균 10.48세로 나타났다. 모자가정이 현재의 모자원에 입소하여 생활한 기간은 평균 20.7개월이었으며, 이들이 모자원에 오기 전의 거처는 월셋집이 전체 대상의 51.6%, 기타가 32.3%, 전셋집이 16.1%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어왔음을 알 수 있다.

## 2. 측정도구

### 1) 시설종사자가 인식한 모자보호시설의 운영 및 입소 모자가정의 가족생활실태

모자보호시설의 운영 및 입소 모자가정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지는 박영란(1998)이 저소득모자가정 자립방안 연구를 위해 사용하였던 설문지를 기초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조사에는 3개 모자보호시설(A, B, D 모자원)의 사회복지전문요원(총무)들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현황, 운영의 어려움과 만족도, 개선점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양적 설문조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3개

모자보호시설(A, C, D 모자원)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병행하였다. 면접조사에서는 입소 모자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모자원 생활 적응, 입소 아동의 학교 적응, 입소 모자가정을 위해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였다.

### 2) 입소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인식한 가족생활 실태

시설 입소 어머니가 인식한 가족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조사의 문항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모자원 생활에 대한 만족도,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과 스트레스 해결방식, 모자원생활의 좋은 점과 어려운 점, 모자원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입소 모자가정 어머니 대상의 양적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어머니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면접조사에서는 시설 모자가정의 모-자녀 관계 및 자녀양육, 모자가정의 어려움과 자녀의 시설과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그리고 자녀를 위해 시설에서 해주기를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서울시 소재 7개 모자보호시설 중 수용인원과 시설규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4개의 모자보호시설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각 모자보호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의뢰하였다. 한편 시설 입소 어머니 대상의 설문조사는 서울시 여성복지연합회가 주최한 2001년 가정의 달 기념 '서울시 여성복지시설 가족위안잔치'에 참여했던 서울시 소재 7개 모자보호시설의 어머니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중 회수된 31부의 설문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위안잔치에 참석했던 어머니 3명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심층면접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시설종사자가 인식한 모자보호시설의 운영 및 입소 모자가정의 가족생활실태

###### 1) 시설 종사자의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는 3개의 모자보호시설(A, B, D 모자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모자보호시설의 운영실태

세 모자보호시설 모두 정부 보조금(국고보조와 지방비)의 30-40%를 인건비, 30-50%를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각 시설에는 원장, 총무부장, 상담교사 또는 상담원, 생활지도사 또는 보조원, 시설 관리원 등 총 4-6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원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된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나 불안으로 독창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이밖에도 능력 있는 프로그램 담당자의 확보가 어렵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관리 기술이 축적되지 않았으며, 감독관리관청의 요구가 지나치고 협조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모자보호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A와 D 모자보호시설에서는 재정상태, 시설상태, 프로그램에서 매우 만족하다고 시설종사자들이 보고한 반면, B 모자보호시설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시설 종사자들의 보고는 본 연구자들이 시설을 방문하여 관찰하였을 때 A와 D 모자보호시설은 시설상태와 지리적 위치도 양호하고 이들 모자가정을 위해 제공하는 사업의 내용도 다양한 반면, B 모자보호시설은 시설상태가 낙후되었고 사업의 내용도 제한된 것으로 나타난 관찰 결과와 일치한다.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두 모자보호시설이 불만족하였으며, 직원의 자질이나 관련기관·단체와의 유대관계 및 수용 모자가정

의 협조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정이 퇴소 후 자립에 성공하는 비율에 대해서 A모자원 종사자는 90%, B모자원은 50%, D모자원은 70%라고 응답하였으며, 모자가정의 자립 개념에 대해서는 퇴소 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퇴소 후 주택마련(영구임대 주택 입주)과 취업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설 종사자들은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생계비와 정착금 지원 단가 인상, 사고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모자복지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시설 입·퇴소에 대한 권한을 시설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고, 생계비 및 운영비(특히 공공요금이나 난방비 등) 지원 단가 인상을 요구하였다. 또한 모자복지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행정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며, 모자보호시설 직원들의 재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저소득 모자가정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 사항으로는 입소 대상자와의 사전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 파악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에서도 입소자에 대한 사전상담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모자보호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실태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3개 모자보호시설에서 입소 모자가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표 4>과 같다.

A, B 모자보호시설에서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다. 반면 D모자원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방과 후 지도를 위한 공부방에서는 숙제 및 학습지도, 미술, 컴퓨터, 피아노 교실 등 특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설 종사자들이 평가

〈표 4〉 3개 모자보호시설의 사업내용

단위 사업	모자보호시설의 실시여부		
	A	B	D
아동보육	×	×	○
공부방(방과 후 지도)	○	○	○
개인상담	○	○	○
집단상담/지도	○	×	○
종교생활지도	○	○	○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	○	○
직업훈련	×	×	○
취업알선	○	○	○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소 초등학생들의 보습학원 및 학교 프로그램 이용이 증가하여 시설에서의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해진 것과 전문 인력의 부족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개인상담은 입소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데, 시설 종사자들은 이 사업이 모자가정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어머니들의 퇴근 시간이 늦기 때문에 상담 시간을 정하는 것이 어려워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 종사자들은 상담교사의 교대 근무 및 근무시간 조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 모자보호시설에서는 방학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한다고 보고하였다.

세 모자보호시설 모두 종교생활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시설에서는 아동들의 특활지도 및 시설 환경정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으며, 이 사업 역시 모자가정 복지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시설 종사자들은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해도 지원자 수가 적고, 특정업무에 필요한 지원자 수가 적어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는 것이 힘든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전문적인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아동들의 특활 및 상담 지도

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모자가정 어머니의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높고, 어머니들이 전문적인 직업 훈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은 D 모자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모자원에서 어머니 컴퓨터 교실만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대졸 이상의 어머니들은 본인의 전공과 연관된 직종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은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실제 모자원에서는 의뢰가 있을 경우에만 직업을 알선해주는 형편이다. 취업알선을 하는 경우에도 사무보조, 식당 및 파출업 등 대체로 단순직에 국한되어 있고,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취업 알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소자의 대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직업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지역모자가정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들이 개발하고 싶은 사업으로는 부모 교육을 통한 어머니의 자존감 회복 및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지도,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언급하였다.

## 2) 시설 종사자의 심층면접 결과

심층면접은 3개의 모자보호시설(A, C, D 모자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입소 모자가정의 가족생활상태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면접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모자가정이 된 경로

3개의 모자보호시설 종사자들에 의하면 시설에 입소하는 대부분의 모자가정은 입소 전 5년 이상 모자가정을 유지하여 나름대로 모자가정에 익숙한 상태에서 모자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시설에 입소하는 사유로서 과거에는 사별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 현재는 이혼과 미혼모 가정이 더 많이 입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2) 시설 입소 어머니의 생활모습

A모자원 종사자는 입소 어머니의 90% 이상이 열심히 산다고 평가한 반면, C모자원의 경우에는 어



머니들의 흡연과 외박 등이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각 모자보호시설의 생활실태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D 모자원에서는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역모임, 어머니 치유 상담, 그리고 부모역할 훈련과 어머니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머니들이 직장에서 늦게 끝나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참석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들은 퇴소 후 울타리(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으며, 퇴소 후 모자원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연결해주는 것이나, 해당되는 가족은 그리 많지 않아 퇴소 후 주택마련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 (3) 시설 입소 아동의 적응

시설 입소 초등학생의 경우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3개월 정도를 시설 적응기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적응하기가 더 힘든 것으로 시설 종사자들은 보고하였다. 특히 이혼과 폭력 가정의 자녀문제는 심각하여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 또는 그리움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남아인 경우 좋은 아버지 역할 부재로 인해 적응이 어려운 반면, 여아는 폭력과 이혼가정의 자녀가 올바른 이성관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시설 입소 아동들은 학교 내에서의 적응뿐 아니라 시설 내 아동들간 적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입소 초반기에는 시설 입소를 부끄러워하나 점차 적응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는 힘들어하지는 않으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시설 입소 사실이 노출되면 부끄러워하고, 이것이 자존감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시설 입소 아동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세심한 관심의 필요성을 어머니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모자보호시설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동의 경우 개인의 특성, 가족배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시설 종사자들이 평가하였다. 즉 아동 자신의 특성이 이기적이어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와 가족배경이 이혼과 미혼모의 경우에는 사별 가정의 아동들보다 입소 아동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미혼모 자녀들이 더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이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사별에 대한 인식이 이혼이나 미혼모보다 비교적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별로 인한 모자가정 스스로도 이혼이나 미혼모 가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입소 모자가정들간의 교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아동들 사이의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자보호시설 입소 아동들간의 공동 활동을 준비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D 모자원에서는 체육활동, 연극과 음악 활동을 함께 한 것이 아동들간의 협동심과 친밀감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A 모자원에서도 매달 1회의 공동 행사를 마련하여 시설 내 가족들끼리 함께 식사를 하거나 등반, 여름 캠프, 연말가족합창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입소 가정들간의 친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시설 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예: 체육, 역할극, 음악 등)이 포함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설 내 모자가정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및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입소 아동들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안정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상담교사와 아동들의 학습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조교사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성교육과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모자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사회 인식과는 다르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사회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시설 아동들의 적응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 입소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와 함께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 2. 입소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인식한 가족생활실태

입소 모자가정의 가족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 입소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 1) 입소 모자가정 어머니의 설문조사 결과

7개 모자보호시설의 어머니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 (1) 모자원 생활 만족도

시설 모자가정 어머니들의 모자원 생활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4.38점(5점 척도), 어머니들이 평가한 자녀의 모자원 생활에 만족도 평균은 3.96점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이 자녀들보다 모자원 생활에 더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 입소자의 모자원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는 박영란(1998)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 (2)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어머니들이 학교생활과 친구들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에 대한 문항의 평균은 4.10점, 그리고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는 평균이 3.87점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에 관심이 많았고, 대체로 자녀들이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는 상반되게 모-자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시설 종사자들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대해 과대 평가했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시설

종사자들은 어머니들의 평가와는 상반되게 입소 아동들이 학교생활 적응으로 고민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아동들이 학교에 시설 입소를 알리지 않는 등 시설 입소에 대한 아동의 수치심을 시설종사자들이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 (3) 모자원 생활의 적응 실태

어머니들은 모자원 생활로 좋아진 점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과 주거의 안정을 지적하고 있어 모자원 입소 전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모자원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의, 식, 주의 해결로 생활이 예전보다 윤택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안정적으로 된 것과 자신감이 생긴 것을 지적하였다. 반면 모자원 생활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점차 나태해지는 것과 공동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어머니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과 열악한 가정환경과 경제적인 문제, 모자원의 지나친 간섭,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자녀가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 할 때, 그리고 자녀가 모자원 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친구들과 다룰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이때 어머니들은 음식을 먹거나 음악을 듣는 것, 잠을 자는 것, 오락, TV 시청, 독서, 울거나 이웃과 대화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입소하고 있는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는 입소 가정이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 것, 방과 후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 아동들의 인성·정서 교육과 성교육의 활성화, 자녀들을 위한

<표 5> 모자원 생활 만족도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N=31)

변 인	평균 (표준편차)	
	모자원 생활에 대한 만족도	어머니의 만족도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만족도	3.96 (0.87)
어머니가 인식한	학교생활과 친구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	4.10 (0.83)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자녀의 교우관계 인식 정도	3.87 (0.72)

놀이 시설 환경 정비, 공부방의 야간 개방, 자녀들의 진로 지도 및 어머니의 늦은 귀가 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를 지적하였다.

2) 입소 모자가정 어머니의 심층면접 결과

입소 모자가정 어머니 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인한 모자가정의 자존감

① 친인척과의 소원한 관계

“친척이요? 그것도 좋을 때나 친척이지... 계속 손 벌려봐요 누가 좋테나...”(다의 어머니)

“난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친정엄마도 싫다하던데...”(나의 어머니)

편모가 된 어머니 가장들은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인식 때문에 시설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주변의 친인척 지원망을 동원하여 모자가정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시설입소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친인척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왕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본인과 친정 가족들과의 왕래, 아버지와 자녀의 왕래만 가끔 있을 뿐이고, 친인척 모임에는 편모가족이라는 자신의 상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편모가족을 오랫동안 지속해온 나의 어머니 경우에는 오히려 시설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위안이 되지 친인척은 남보다 더 못하다고 단언하였다.

모자보호시설 어머니들의 이러한 반응들은 친인척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결과일 뿐 아니라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획일화된 가족에 대한 정의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획일화된 척도로 정상과 비정상을 규정짓는 문화에서 모자가정 어머니들은 자신의 상황을 특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인척 모임에 참여하기를 꺼려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자존감을 낮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아이들이 외부에 자신의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에 일조할 수 있다.

② 모자가정 자녀의 시설 입소 노출의 두려움

“선생님이 모자시설에 살고 있는 것을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꼴이 됐어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급식비가 무료거든요. 그런 건 선생님이 알아서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선생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아이를 전학시켰어요.”(나의 어머니)

모자시설 입소 학생에 대한 학교 선생님의 특별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한 나의 어머니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서 시설 입소 아동들 자신의 상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어머니 역시 이런 부분이 힘든 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2) 모자가정의 정서적 지지 부족

“여기에 들어와서 우선은 집도 해결되고 해서 좋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참 좋아요. 그렇지만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힘들 때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가의 어머니)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 노래방이나 가나? 근데 뭐 노래방 간다고 해결되나... 그냥 뭐...”(나의 어머니)

“지금도 많이 외롭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더할 거 같아서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애들이 반대하면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애들이 수용하고 나

<표 6> 심층 면접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인구학적 특성

어머니명	연령(세)	자녀수(명)	모자가정이 된 경로	입소 기간	교육수준	직업
가	44	1	가정폭력으로 이혼	1년 10개월	고졸	텔레마케터
나	34	1	이혼	10개월	고졸	무직
다	37	2	성격차이로 이혼	2년 11개월	고졸	어린이집교사

크면 모를까...”(다의 어머니)

여러 가지 동기로 모자시설에 들어온 어머니들은 시설에서 제공해 주는 혜택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가의 어머니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한 경우였기 때문에 모자시설에 들어와서 무엇보다도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음에 매우 만족하였다. 또한 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목사님과 꾸준히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것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고 하였다. 모자시설에서도 어머니 대상의 개인상담이 있긴 하지만 지속적이기가 어렵고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모자시설에 있는 어머니들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경제적인 면이 시급했지만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많이 힘들어함을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친구나 친척에게서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는 편모들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이나 부양 부담감을 다소 해결할 수도 있지만 모자시설에 있는 어머니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본인들 스스로가 친인척과의 관계를 끊고 있는 상태일 뿐 아니라 친구에게도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어떤 정서적 위로도 받을 수 없었다.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모자시설의 다른 가족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편한데 각각의 가족이 직장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기 힘들고, 모자시설 내에서도 서로가 잘 지내는 가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랫동안 편모가족을 경험한 나의 어머니는 정서적인 면에서 힘든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해 봤지만 해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체념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지금까지 해 온 방법들이 정서적 위안이 되지 못했다고 진술한 세 명의 어머니들이 모두 전적으로 동의해서 제시한 또 다른 해결책은 재혼이었다. 모자시설의 편모가족이 경험하는 정서적 외로움에 대한 대처방법은 재혼으로 제시되었으나 그것 또한 현재의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법은 부

재 한다고 볼 수 있다.

### (3) 모자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우선은 전문적인 선생님이 필요해요. 모자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원봉사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돼요. 외부에서 수업료를 지불하고 수업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책임감을 갖고 가르쳐 줄 전문적인 선생님이 필요해요. 피아노든 그림이든 학과 공부든 간에...”(다의 어머니)

“입소 초에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왜 어느 집단이든 간에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면 점차 해결이 돼요.”(가의 어머니)

“또 아이들이 모자원에서는 서로 잘 지내다가도 학교에서는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학교에서 어떤 아이는 자기가 어디 사는 지를 노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거든요. 아니면 학교 친구를 모자원에 데려와서 안다든지... 여하튼 학교에서는 모자원 아이들끼리 뭉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나의 어머니)

모자시설에서 편모로써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세 명의 어머니들 모두 아이들의 학업 성취를 꼽았으며 그 문제를 처음 언급한 다의 어머니 의견에 모두 전적으로 동의했다.

모자보호시설 내에서 아이들을 양육시키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시설내의 아이들간의 적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의 어려움보다는 시설에서 사는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뒤흔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큰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4) 모자가정 모-자녀간 상호작용

“너무 일찍 출근하느라고 아침을 챙겨주지 못할 뿐 아니라 학교에 가는 것도 봐 주지 못해 미안할 때가 많아요.”(다의 어머니)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집에 오기 때문에 그제서야 아이에게 밥을 주고, 학교준비물과 숙제를 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하려니까 아이와 다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소리부터 지르게 되고 화부터 내게 돼요.”(가의 어머니)

시설에 입소한 모자가정은 3년 동안의 무료주택과 생계보조금 제공, 학비보조, 급식비 지급 및 사회복지사 퇴근시간 전까지의 방과후 자녀지도 등의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을 뿐 그 이외의 것은 일반 모자가정과 다를 것이 없다. 대체로 모자가정 어머니들의 빠른 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모자가정의 자녀들은 사회복지사들의 퇴근 이후부터 어머니들의 퇴근시간까지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모자가정 어머니들은 자녀를 제대로 돌보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 부재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더 과잉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어 과잉애착과 관심을 보이지만 짧은 시간동안 자녀를 돌보아야만 하는 구조적 상황에서 자녀와 함께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 (5) 모자가정의 경제적 상황

"입소기간을 좀 더 연장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3년이란 기간이 길면 길겠지만 들어와서 어영부영 적응하느라고 1년을 지내고 이제 적응이 되나 싶으면 나갈 준비를 해야하거든요. 우선은 퇴소할 때 주거를 마련할 비용이 가장 부담이 커요. 아무리 열심히 저축해도 전세비 마련은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럼 지금 받는 월급으로 월세도 내야하고 그리고 어떻게 아이 둘을 학교를 보낼 수 있겠어요? 물론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상황이야 조금 나아지겠지만 이 상태에서 다시 나가게 되면 또 힘든 과정이 악순환이 될 것 같아 고민이에요."(다의 어머니)

퇴소를 앞두고 있는 다의 어머니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는 모자시설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혜택(생계비보조, 학비보조, 주거제공 등)이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나 퇴소 후 주거, 경제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해 준다는 모자복지시설의 운영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3명의 어머니들과의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외부에 자신의 모습을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자존감 문

제, 편모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는 획일화된 가족문화의 가치관 문제, 모자가정에 대한 정서적지지 부족, 자녀의 학교 및 모자원 적응문제, 모-자녀의 상호작용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모자가정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모자가정의 가족생활 실태와 모-자녀관계 및 자녀양육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4개 모자보호시설의 종사자와 7개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가족생활에 관련된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모자보호시설 가정에 대한 가족생활 교육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모-자녀관계 및 아동의 건강한 인성발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종사자들의 설문 조사 결과 모자원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적인 부담 및 불안, 독창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점, 능력 있는 프로그램 담당자 확보의 어려움, 효과적인 프로그램 관리 기술 축적의 부재 그리고 감독관리 관청의 요구가 지나치고 협조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모자복지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시설 입·퇴소에 대한 권한을 시설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과 모자복지사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행정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며, 모자보호시설 직원들의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입소 모자가정의 생활실태에 대해 시설 종사자들은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지도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입소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내 방과 후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전문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부방의 야간 개방, 자녀들의 진로 지도를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모자보호시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여전히 어머니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아동들의 학습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사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 내용이 인지적인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모-자녀관계 강화 및 아동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퇴근이 늦을 때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이 운영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시설종사자들과 어머니들은 전문적인 상담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현재 모자보호시설에서는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상담원이 부족하며, 직장 때문에 늦게 귀가하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별도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각 시설 내 전문적인 가족상담원의 배치 및 교대근무와 야간 상담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설 종사자들에 의하면 입소 사유가 사별 중심이던 과거에 비하여 최근에는 이혼, 미혼모의 증가로 인한 시설 입소가 급증한다고 한다. 특히 모자보호시설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동의 경우 모자가정이 되는 경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이혼과 미혼모 자녀의 경우, 사별 가정에 비하여 시설 내 아동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되었다. 이는 사별가족이 이혼가족보다 생활만족도와 자존감이 더 높다고 보고한 Gove 와 Shin(1989)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사별로 인한 모자가정 스스로가 이혼이나 미혼모 가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아동의 건강한 적응과 사회성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자가정 스스로가 친인척 및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이므로 정서·사회적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사회적 관계망인 포괄적인 가족(wider family)이 필요하다(Donati, 1995). 본 연구의 면접 대상인 어머니들 역시 모자보호시설 내 가족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자보호시설 내 입소 가정들끼리 자신들의 문제와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지지적인 집단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에서 지적한 어머니들의 정서적 지원,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는 어머니들의 자존감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아이들이 외부에 자신의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의 원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입소 아동들의 시설 내 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가져오으로써 아동의 자존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들의 자존감 향상과 가족의 다양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시설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를 꾀하는 홍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어머니들은 모자시설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역할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녀와 갈등이 있거나 자녀가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 할 때 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아버지 부재 및 시설 생활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과민 반응과 지나친 간섭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모-자녀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모자보호시설의 가족생활 실태를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제시해보고자 하였으나, 서울시 소재의 모자보호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자원 생활 만족도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문항들은 단일 문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척도를 구성하여 추후 연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모자보호시설 종사자들과 입소 모자 가정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시설 모자가정의 가족생활과 모-자녀 관계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현재까지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생계비, 자녀학비, 3년간의 주택 제공, 주택정착 지원비 등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지원이 시설 모자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시설 모자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제도, 모자가정의 특수상황에 따른 생계비 추가 지급 및 모자가정의 경제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수당 지급 등의 대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모자가정을 형성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정책 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강화 및 자녀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그 동안 충분히 지원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모자보호시설 아동들의 정서·사회성 발달과 모-자녀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김미숙, 박민정, 이상현, 홍석표, 조병은, 원영희 (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정책보고서 200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에 관한 질적내용 분석. 안성산업대학교 논문집, 28집, 245-252.

김오남(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영란(1998).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98

연구보고서 240-20. 한국여성개발원.

보건복지부(1997). 모자가정 실태조사 결과. \_\_\_\_\_(2001). 2001년도 모자복지시설 현황.

신수자(1995). 부자가정의 특성과 대책.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화용, 조병은(1996). 편모가 인지한 자원과 편모의 심리적 적응. 가족학논총, 8, 57-76.

유경아(1998).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의 사회,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모자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해경(1997). 사회적 지지망 구조가 편부모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377-397.

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1988).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88 연구보고서 200-2.

Conger, R. D., K. J. Conger, G. H. Elder Jr., F. O. Lorenz, R. L. Simons, & L. B. Whitbeck.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Donati. (1995). Single parents and wider families in the new context of legitimacy. In S. M. H. Hanson, M. L. Heims, D. J. Julian, & M. B. Sussman(eds.), *Single Parent Families: Diversity, Myths and Realities*, 27-42.